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김은경*

차례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시각
2. 법에 대한 소극적 저항과 우울증적 주체의 형성
3. 법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과 순종적 주체의 허명
4. 법으로부터의 일탈과 사회적 주체 형성의 좌절
5. 법에 대한 저항과 복종을 통한 새로운 주체의 형성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박경리 소설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지식인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여성 지식인 인물들이 법에 대응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법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 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인물,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자행하는 인물, 법에 대해 저항과 복종의 양가적 태도를 취하는 인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법에 대한 대응양상에 따른 여성 주체의 형상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 유형의 여성인물은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제도라는 법에 복종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 장애로 인해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애고에 합체함으로써 ‘우울증적 주체’를 형성한다. 그 결과 가족관계 내에서의 정체성을 실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법에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두 번째 유형의 여성인물은 가족제도의 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만, 에로스적 사랑의 부재 혹은 이러한 사랑의 자질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없음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가족관계 내에서 허명에 불과한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상실한다. 이들이 주체적 사유 없이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두고 호명된 사회적 주체 역시 허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유형의 여성인물들은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려 하지만 좌절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여성인물은 법에 대한 저항과 복종의 양가적 태도를 취하는 바, 이를 통해 이상적인 주체를 형성한다. 본고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인 여성상 고찰을 통해 주로 긍정적 여성상 조명에 그친 기존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박경리 문학을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부정적 지식인 여성상에 의해 보다 잘 양각된 긍정적 여성 지식인상을 통해 박경리가 법에 대한 저항을 통한 여성 주체의 재의미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핵심어 : 여성지식인, 법(권력, 지배담론), 우울증적 주체, 순종적 주체, 사회적 주체, 저항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시각

박경리 소설은 주로 지식인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박경리 소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대다수 고등교육을 받은 이력으로써 지식인의 외양을 구비하고 있으나, 소수의 여성인물들을 제외한 여성 주인공들은 지식인으로서의 각성과 자의식이 참여하지 않으며, 그들이 소유한 지적 자산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본고는 박경리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식인 여성상을 사회적 규범과 이념으로 현상되는 권력과의 관련 양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¹⁾ 박경리는 다작의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법'개념은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제도, 사회적 지배담론으

작가이지만, 그녀의 전체 문학세계에 대한 조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춘 논의 역시 주로 박경리의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여성인물에 관한 기존 연구사 가운데 정체성 문제를 다룬 논의가 주목된다.²⁾ 이러한 논의들은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을 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조명하고 있는 바, 이는 논의대상 작품의 제한에서 말미암은 일면적이고찰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논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박경리의 중·장편 소설들을 포함하여 논의대상작품을 박경리 문학 전반으로 확장하여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 여성상의 다각적인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 역시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 인물의 ‘정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주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바, 본고는 ‘법’과의 관련선상에서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지

로서의 이념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 개념은 정신분석학, 푸코의 논의 등에 기 대고 있다. 한편, 본고는 일정 수준의 제도권 교육을 이수한 여성인물을 ‘지식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대학교육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작품에서 제시된 여성인물들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95 ; 김해옥, 『‘여성적 자존(自尊)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편, 솔, 1996 ;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 위의 책 ;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1999 ; 이미정, 『1950년대 여성 작가 소설의 여성 담론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2 ;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2006. 한편, 박경리 문학 전반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조망한 다음의 논의는 제도와의 관련선상에서 여성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 필자는 박사논문(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8)에서 박경리가 발표한 작품 대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그녀의 문학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본고는 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되, 연구의 시각을 달리하여 ‘법’과의 관계에서 여성인물의 주체구현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식인 여성 주체의 존재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인간 주체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한 대표적 이론가로 프로이트, 알튀세르, 푸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금기에 대한 양심의 반응, 이데올로기 및 권력과 의 관계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³⁾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구성한다⁴⁾는 알튀세르의 명제, 인간의 육체에 가해지는 권력과의 관계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거론한 푸코의 논의⁵⁾는 주요한 주체 이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체 관련 논의들에서 출발하여 젠더 정체성 이론을 수립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는 푸코가 간과한 ‘정신’의 전복적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알튀세르의 순종적 주체를 비판함과 동시에 주체의 일관성을 부정하고 재의미화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⁶⁾ 본고는 프로이트, 알튀세르, 푸코 등의 주체 관련 논의의 토대 위에서 인간 ‘정신’의 ‘저항’에 주목한 버틀러의 논의를 원용하여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지식인 인물의 주체구현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젠더 정체성에 주목하기보다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지식인 인물들이 결혼·가족제도 혹은 사회의 지배 담론⁷⁾에 대응하는 양상을 통해 여성 주체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할

3)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204~228쪽.

4) L. Althusser,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도서출판 백의, 1995, 175쪽.

5) M. Foucault,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6) J. Butler, *The Psychic Life of Power-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niv. Press, 1997, pp.83~105, pp.106~131 ; S.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역, 엘피, 2007, 217, 233쪽.

7) 본고는 이를 ‘법’개념으로 총칭하고 있다. 박경리 문학 전반을 통해 ‘법’과의 관련성 상에서 지식인 여성의 주체구현양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 다음의 단편·중편·장편들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귀족』(1961), 『설화』, 『눈먼 실술』(1967), 『표류도』(1959), 『내 마음은 호수』(1961), 『가을에 온 여인』(1962~63), 『재혼의 조건』(1962~63), 『시장과 전장』(1964), 『타인들』(1965~66), 『영원한 반려』(1967), 『창』(1970), 『단층』(1974), 『토지』(1969~94). 이하 작품 인용면수는 내각주로 처리한다.

것이다.

2. 법에 대한 소극적 저항과 우울증적 주체의 형성

박경리 소설에는 혼사장애로 인해 결혼에 이르지 못한 연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불륜의 사랑, 근친적 사랑, 혈통의 문제 등 혼사장애의 양상은 다양하다. 본고의 논의대상이 되는 박경리 소설에서는 혼사장애로 인해 결혼에 이르지 못한 인물들이 그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망각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은 여성 지식인 인물들을 통해 예각적으로 드러나는 바, 이들은 현실적 장애 때문에 포기된 사랑의 대상을 내면에 지속적으로 간직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 이들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결국 지배담론이 양산해 내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상실의 거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실에 대한 반응양식 혹은 상실에 대한 거부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바, ‘우울증적 합체’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주체가 사랑하던 대상에게서 버림받거나 그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 대상에게 느끼는 애증의 양가감정을 우울증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우울증의 과정에서 주체는 대상을 자신의 에고 일부로 합체하기 때문에 우울증은 주체가 자아를 형성하는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본다.⁸⁾ 버틀러는 이러한 프로이트의 심리이론에 푸코의 권력 이론을 접합하여 ‘우울증적 주체’에 대해 논의하는데, 주체가 권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권력 안에서 ‘반동적 저항성’을 가짐을 주장한다.⁹⁾

8) 조현준, 앞의 책, 229~230쪽 ; S. Freud,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7.

『눈먼 실술』의 옥여사, 『내 마음은 호수』의 유혜련, 『가을에 온 여인』의 오세정, 『영원한 반려』의 신병희 등의 여성 지식인 인물들을 통해 이러한 ‘우울증적 주체’의 법에 대한 소극적 저항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눈먼 실술』은 사랑과 믿음이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일우·옥여사 부부와 정식·윤식의 두 아들로 구성된 이 가족 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옥여사가 과거에 상실한 사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옥여사는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정신병으로 죽은 생모의 이력 때문에 부친과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배경 하에서 고독하였던 옥여사는 학생시절 한 남자를 사랑하였다. 옥여사는 그 남자를 “악마처럼”(300) 사랑하였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사구가 암시하듯이 그 사랑은 옥여사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한다. 이미 아이(정식)를 가진 상태에서 옥여사의 혈통의 문제가 혼사장애로 작용하여 이들은 결혼에 이르지 못한다. 대신 옥여사는 자신의 집안에서 버리던 점원이었던 김일우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미혼의 여성이 사생아를 홀로 낳아 기를 수 없다는 ‘법’, 즉 사회의 지배담론에 승복한 “일종의 야합”(301)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눈먼 실술』의 결말부에서 밝혀지는데, 작품의 전반부는 “일종의 야합”으로 맺어진 김일우·옥여사 부부의 “치열한 내면의 싸움”(301)과 잘못된 가족관계에서 비롯하는 “비인간적인”(298) 면모를 간과한 둘째 아들 윤식의 방황에 이은 발광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펼쳐진다. 본고는 상실한 과거의 사랑을 정리하지 못하고, “정신을 뽑아낸 허수아비”(275)처럼 “유령의 일생, 그림자의 일생”(296)을 살아가는 옥여사의 면모에 주목한다. 학생시절의 첫사랑을 상실한 이후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 자식들에게조차 모성애를 나누어주지 못한 옥여

9) 조현준, 앞의 책, 240쪽.

사의 생명감 없는 “유령”과 같은 삶은 ‘상실에 대한 거부’로써 읽힌다. 혈통의 문제를 들어 자신을 배반한 남자를 옥여사는 자신의 예고에 합체하여 ‘우울증적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녀가 편입된 가족제도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일종의 ‘가면’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이러한 ‘가면’은 상실을 감추는 전략으로서 타자를 부인하지만, 그런 부인의 방식으로 결국 타자를 보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¹⁰⁾ 옥여사가 가족제도라는 권력의 장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유령”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그녀의 이와 같은 정체성은 실제적으로는 거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옥여사는 사생아를 낳은 여자에게 쏟아질 수 있는 사회적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일종의 야합”으로서 결혼제도라는 법에 승복하지만,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권력의 장 내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마음은 호수』 역시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마음속에 간직한 지식인 여성의 가족제도 내에서의 갈등을 담은 작품이다. 여주인공 유혜련은 “인생을 잃었기 때문”에 “문학”(56)을 하여 작가가 된 인물이다. 이 작품은 유혜련의 여류작가로서의 정체성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가 “인생을 잃”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이는 작품의 전후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녀가 젊은 시절 사랑하였던 대상(이영설)과 이별한 사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인생을 잃”은 그녀의 삶, 즉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삶 속의 그녀는 이른바 “유령”의 삶을 산 『눈먼 실술』의 옥여사와 유사하게 그려진다. 유혜련이 문학을 하는 것은 문학 자체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 “무서운 권태”를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고

10) 조현준, 앞의 책, 243쪽.

백되어지며, 언제나 “소상처럼 표정이 없고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녀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9)을 이루는 존재인 것으로 그려진다.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결코 “망각”(55)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유혜련 역시 그 대상을 자신의 애고에 합체한 ‘우울증적 주체’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눈먼 실술』의 옥여사처럼 혼전에 아이를 가졌던 유혜련은 오해로 인해 이영설과 이별한 이후, 자신을 사랑해 주는 문명구와 결혼한다. 이 결혼은 유혜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으로서, 이 역시 사생아를 낳을 위기에 처한 여자가 법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결혼 제도내로의 안착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혜련이 스스로를 “인생을 잃은 여자”(65)로서 단정 짓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문명구와 이룬 가정에서 유혜련의 아내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는 ‘가면’이라 할 수 있겠다. 『눈먼 실술』에서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 문명구에 대한 유혜련의 연민과 가책이 짙게 묻어난다.¹¹⁾ 이는 첫사랑에 대한 상실의 거부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내 마음은 호수』 역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회의 지배담론에 복종한 지식인 여성인물이 사랑 부재의 결혼생활 내에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완곡하게 거부함으로써 법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가을에 온 여인』은 지식인 여성인물 오세정을 통해 상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피기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 역시 애정 부재의 결혼제도에 대한 저항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 같은 부류로 묶어볼 수 있다. 오세정은 피

11) 유혜련이 남편에 대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신적인 보상”(378)은 이영설의 딸인 문진수를 문명구의 딸인 것처럼 꾸미는 것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아니스트였던 과거의 연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자신을 떠나자 그와의 정사(情死)를 시도하여 그를 죽게 할 만큼 집착과 이욕이 강한 여자로 등장한다. 연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녀는 스스로를 학대할 요량으로 죽은 연인의 형과 애정이 없는 결혼을 감행한다. 자기학대를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권 내에 편입한 오세정은 그러나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녀를 관찰하는 제3자의 시선에 그녀는 “소리 없는 통곡과도 같은 것이 서리는 듯”(76)한 “처절한 표정”(23)의 인물로 포착된다. 이러한 표정은 그녀가 연인의 상실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는 사실, 즉 결코 “망각증 환자”(78)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상실한 연인은 오세정의 예고에 합체되어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수 없도록 한다. 오세정이 과거의 애인을 닮은 가정교사¹²⁾를 통해 과거 연인의 환영을 보고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우울증적 주체’를 형성한 오세정 역시 남편 강명하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아내로 자리한다. 이 작품은 오세정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오세정의 육체만을 사랑하는 강명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오세정에게서 도발된 정욕을 집안에 둔 정부를 통해 해소한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오세정이 합법적인 가족관계 내에서 강명하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그의 동생의 연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작품 역시 사랑이 부재한 가운데 성립된 결혼이라는 법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겠다.

한편, 『영원한 반려』에서는 금기의 사랑을 포기하고 법에 복종하였던 여성인물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내이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첩으

12) 과거의 연인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오세정과 남편 강명하의 조카이기도 한 조카 찬이의 가정교사.

로 살 의지를 가짐으로써, 인간 본연의 감정과 반드시 순치할 수 없는 법에 대한 저항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 작품에서 신병희는 대학시절에 시작하였던 불륜의 사랑을 접고 자포자기식의 결혼을 하지만, 남편과의 사별을 계기로 제도권 내에서 아내로서의 지위를 다시는 갖지 않을 결심을 굳힌다. 이러한 신병희의 결심은 그녀가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결코 찾지 않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즉, 그녀는 과거의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에고에 합체한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의 결혼생활을 “지옥”(206)으로서 규정하는 말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남편과의 사별은 그녀가 아내로서의 가면을 벗고 사랑의 감정을 억압하는 법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상 살핀 지식인 여성인물들은 모두 결혼이라는 제도권으로 진입하지만, 옛 사랑의 상실을 거부함으로써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법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저항이 새로운 주체의 정립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하겠다.

3. 법에 대한 무주견적 순응과 순종적 주체의 허명

앞에서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보인 여성 지식인 인물들이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가면’을 씌우으로써 법에 대해 저항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들의 이러한 저항은 결혼·가족제도라는 권력의 장 내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통해 사회적 주체 정립의 의지를 찾아볼 수는 없다. 한편, 박경리 소설을

통해 사회제도, 권력, 지배담론에 대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는 여성 지식인 인물군을 살필 수 있다. 이 인물군은 알튀세르가 이르는바 이데올로기의 호명과 법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종적 주체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처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텔리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영위코자 한다. 그런데 박경리는 법의 부름과 지배담론에 편승하는 이들 지식인 여성 인물들을 결코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박경리의 여성 지식인 인물 형상화에 내재하는 저항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귀족』, 『설화』, 『창』, 『토지』 등의 작품을 살필 수 있다.

단편 『귀족』에 등장하는 민여사는 표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재색 겸비”의 “완전무결한 현처”(19)이자 “예술의 이해자로 혹은 보호자”로 사회활동을 한 인물이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민여사가 유명을 달리한 후, 그녀가 “인생자체를 예술화하려는 멋”이 있는 “귀족”으로서 살았다는 것이 그녀에 대한 중평이다. 그러나 이 단편의 화자로서 화가인 ‘나’는 민여사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 ‘나’가 바라본 민여사는 “연애도 못해 본 여자”로서 “허황한 껍데기 위에 섰던” 인물이다. 이러한 민여사에 대해 ‘나’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귀족, 물기없는 얼굴, 가면”(25)이다. 민여사 시동생과의 친분을 계기로 그녀와 잦은 접촉을 해왔던 ‘나’의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는 민여사의 지난 삶은 ‘나’의 이러한 평가에 설득력을 준다. 또한 ‘나’의 민여사에 대한 평가에 박경리의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해 상론키로 한다.

우선, 문벌이 좋은 집안의 후손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광택”을 발견하여 “벼락부자”가 된 김주환의 후처가 된 민여사의 결혼제도 내에서의 삶은 “연애도 못해 본 여자”라는 ‘나’의 평가를 통해 단적으로 규정된다. 앞장에서 살핀 여성 지식인 인물들의 면모를 통해 에로

스적 사랑이 가정 내에서 여성 주체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¹³⁾ 여기에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 주체의 문제에 대한 박경리의 작가의식이 담겨 있다 할 수 있는 바, 이에 기대어 볼 때 사랑 없이 결혼의 조건 만으로 가족제도의 법에 복종한 민여사의 삶은 이른바 “허황한 껍데기”로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민여사가 김주환의 집안에서 누렸던 ‘현처’로서의 지위는 ‘나’의 평가대대로라면 허명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민여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 여성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런데 ‘나’의 기억을 통해 재현되는 그녀의 사회적 삶은 시류에 편승하는 무주견적인 것이다. 민여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자유당정권시대, 4·19혁명 등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친일파, 좌익옹호자, 자유당정권 지지자를 거쳐 열렬한 혁명세력 옹호자로 거듭난다. 이와 같이 각 시기의 지배담론에 편승하는 민여사의 순종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기회주의자로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 여성, 예술애호가, 귀족 등으로 불린 민여사의 사회적 주체는 기회주의자라는 이름 하에서 모두 허명(“허황한 껍데기”, “가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겠다.

단편 「설화」의 여주인공 정원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재색겸비의 여성이지만, 무주견적 순종적 주체로서 규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족」의 민여사와 상통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정원을 형용하는 어구는 “정방형적 인간형”(142), “견식이 높은 숙녀”(143), “목석”같은 여자(144), “온도가 없는 여자”(144), “생각하는 기계”(144)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은 어구들은 정원이 창조적 사유를 할 수 없다는 점, 하나의 “포즈”로

13) 조현준은 버틀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사랑은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준, 앞의 책, 235쪽.

서 삶을 살아간다는 점, 연애를 할 수 없을 만큼 정열이 없다는 점, 진실을 외면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특성들의 공통분모의 자리에 개성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정원이 인텔리 여성의 전형으로 제시된 지배담론을 추수하는 무주견적 인물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박경리는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성정의 정원을 가정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모두에서 실패한 비극적 인물로 형상화한다.

정원은 세 번의 결혼에 실패한 후, 또 한 번의 결혼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한 것을 계기로 불의의 죽음을 맞는다. 이처럼 정원이 결혼에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첫 번째 결혼의 상대자 유병민이 파악한, 앞에서 열거한 성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에 걸친 결혼을 하고, 네 번째 결혼까지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서 정원 자신은 결혼제도 내에 안착하여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원은 남녀가 결혼하여 가족제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지배담론에 순응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그와 같은 욕망이 수차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가족제도라는 법에 대한 복종이 무주견적이라는 데 있다. 정원은 고등교육을 받은 재색 겸비의 인텔리 여성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추어 검사, 장군, 사장, 시인 등의 상대와 결혼하거나 결혼을 욕망한다. 그런데 정원에게 유병민이 토로한 바 있는 “연애라도 한번 해본 여자”의 조건, 즉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그녀로 하여금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이라 할 때, 사랑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결혼제도 내에서 아내, 어머니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음을 박경리는 정원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류시인으로서의 정원의 명망 역시 허명임을 박경리는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유병민의 시선을 통해 정원의 박학다식이 암기한 지

식의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그녀의 이웃에 대한 자선이 위선에 지나지 않음이 통렬하게 드러난다. 정원에게는 시인에게 있어 특별히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창조적 사유, 생명에 대한 사랑,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정원은 다만, 시인의 ‘포즈’를 취할 뿐인 것이다.¹⁴⁾ 즉 그녀는 시인의 겉모습을 답습하는 개성 부재의 존재로서, 지배담론에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원의 면모는 “당신의 몸뚱아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153)라고 한 시인 K의 평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상 논의된 작품들을 통해서 박경리가 에로스적 사랑을 가족제도 내에서 여성의 주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편 『창』은 이지숙을 통해 현실적 장애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인물의 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허명임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지숙은 문벌이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딸로서,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재벌 김재경의 후처로서 팔리듯이 결혼한다. 풍요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지숙은 맹시현과 불륜관계를 맺는다. 이 작품은 물질적 타산으로 한 결혼관계 내에서 “사랑하는 감동, 사랑받는 희열이 없”(95)는 이지숙이 결국 가정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과정을 그려 보임과 함께 법에 저항하여 열정적 사랑에 몰입할 수도 없는 이지숙의 무주견적 심리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지숙은 자신의 불륜행각의 비밀이 유지될 당시에는 맹시현에 대한 감

14) 박정애는 『설화』의 정원을 통해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된 ‘여류’ 이미지를 살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화』에는 그 희소가치 때문에 시인, 소설가로 대접받는 여류 문인에 대한 박경리에 인식이 드러나 있다. 박정애, 『‘女流’의 기원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주), 2006, 84~88쪽.

정을 사랑이라 주장하지만, 그 비밀이 남편에게 탄로되었을 때는 “김재경의 아내”(201)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교활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는 결국 김재경과 맹시현 가운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서 “외간 남자와 간통”(201)을 한 여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게 한다. 이 작품은 이지숙의 이러한 처지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그녀가 “혼자 설 수는 없는 여자”(239)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혼자 설 수는 없는 여자”이기에 이지숙은 연령차가 많이 나는 김재경과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여 가족제도에 편입하였으며, 역시 “혼자 설 수는 없는 여자”이기에 그녀는 맹시현과의 관계를 법에 저항해서라도 쟁취해야 할 불륜의 ‘사랑’이 아닌, 타산적인 계산을 피할 수 없는 의도로서 규정짓도록 이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법에 복종한 이지숙은 결말부에서 김재경의 집으로 되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아내로서의 지위, 어머니로서의 지위 모두가 허명이 될 것임을 깨닫는다.

박경리의 대표작 『토지』를 통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법에 순응함으로써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여성 지식인 인물을 살필 수 있다. 『토지』에는 다양한 부류의 신여성이 등장하는 바, 그 가운데 임명희는 본 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순종적 주체의 면모를 보여준다. 우선, 임명희는 가족제도라는 법에 별다른 저항 없이 승복한 결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창』의 이지숙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단, 임명희를 통해서 이지숙에게서와 같은 타산의 교활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임명희의 사람됨은 그녀의 여고동창 길여옥에 의해 “맹물”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임명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뚜렷한 욕망과 “의욕”(⑪;107)¹⁵⁾이 없는 인물로서 성격화되어진다. 임명희는 조흔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상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품지만, 가족

15) 박경리, 『토지』, 솔출판사, 1996. 이하 『토지』의 인용문수 표기는 (권수;면수)로 한다.

제도에 저항하여 그 사랑을 쟁취할 만한 열정과 행동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녀의 오빠 임명빈이 파악한 바와 같이, 임명희는 “신교육을 받기는 받았으되 묵은 인습이 타파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⑦;353) 부류의 신여성에 속한 인물인 것이다. 이상현에 대한 불륜의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혼기를 놓친 자신을 채근하는 임명빈의 조언을 들은 임명희는 이상현에게 사랑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추후 그녀 스스로 인정하듯이 법에 저항할 만한 열정과 행동력을 갖춘 결단은 아니었기에 이상현의 거절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임명희는 결국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년 출신인 자신을 귀족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 준 조용하와의 애정 없는 결혼을 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가족제도에 편승하게 된다. 앞선 박경리의 다른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명희는 이 사랑 부재의 결혼관계 내에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에 위기를 겪게 되며, 결국 이혼동의서를 남기고 기출한다. 추후 임명희는 조용하와 결혼생활 십년을 유지하였던 자신을 “조씨 집안”의 “이방인”(⑪;93)으로 규정함으로써 귀족의 아내,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허명이었음을 시인한다.

기출과 함께 가족의 제도권을 벗어난 임명희는 사회적 주체로서도 거둬나지 못한다. 임명희는 자살 시도를 한 이후, 친구 길여옥과 함께 생활하면서 “탈피의 고통”(⑪;103)을 겪지만 희망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겪지 못한 것으로 그려진다. 임명희는 여전히 “십자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⑪;80)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통영의 작은 분교에서 촉탁교사로서 일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의탁한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임명희는 “한 마리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는”(⑪;308) 몸부림으로 진단하면서 부끄럽게 여긴다. 이처럼 기출 이후의 임명희는 일하는 여성, 즉 사회적 주체로서도 자신을 올곧게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조용하 사후 임명희

는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미망인으로서 남겨지게 되는 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무주견적 순종적 주체로서의 그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4. 법으로부터의 일탈과 사회적 주체 형성의 좌절

2장과 3장에서 살핀,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지식인 인물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법에 순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여성인물들에 대한 박경리의 시선은 긍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3장에서 논의된 사회의 지배담론에 무주견적으로 순응하는 여성 지식인 인물에 대해서 박경리는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기존 논의는 주로 박경리가 창조한 여성인물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듯이 이러한 평가는 박경리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에 대한 일면적 고찰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박경리가 그린 이상적인 여성 지식인상을 살피기에 앞서, 법에 대한 저항이 아닌 ‘일탈’을 자행함으로써 추악하게 그려진 박경리의 여성 인물들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적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탄생하지만, 저항의 반동성을 통해 주체를 재의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¹⁶⁾ 하지만 여기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그로부터의 일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버틀러는 저항을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인정하지만, 도덕의 자기-반성성에 따른 금지, 자기-책망, 자기-처벌이 주체가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지적한다.¹⁷⁾

박경리가 창조한 여성 지식인 가운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

16) 조현준, 앞의 책, 204~224쪽.

17) S. Salih, 앞의 책, 223~226쪽.

없이 법으로부터 일탈함으로써, 이를 수단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려는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타인들』의 강경옥, 『영원한 반려』의 김영미, 『나비와 엉겅퀴』의 송인숙, 『단층』의 기옥, 『토지』 홍성숙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타인들』의 강경옥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화려하게 귀국한 피아니스트이다. 여주인공 문희가 음악가로서의 삶을 접고 가족제도에 안착한 것과 달리, 미혼인 강경옥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대성을 기약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재학시절 문희와 문희의 남편 하진, 문희의 오빠 문영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지 않은 연정을 주고받았던 강경옥은 귀국 이후 문란한 삶의 행태를 거침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전정을 밝혀줄 “후원자”라면 그 누구도 “심심풀이의 상대”(57)로 삼을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강경옥은 성을 수단으로 자신의 예술의 후원자를 구하여 음악가로서의 “명성”(78)을 얻고자 한다. 예컨대, 강경옥은 문희의 남편인 하진과 비밀스런 관계를 맺고 난 이후, 하진과 처남 매부 간인 문영과도 그가 자신의 예술을 후원해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다. 이러한 관계가 문희의 아내 현숙에게 폭로되었을 때 강경옥은 창녀로서 매도된다. 이 작품의 다른 한 축은 한국전쟁 때 애인의 윤간 살해에 가담한 하진의 죄의식과 그로 인한 현실 부적응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바, 피아니스트로서의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자행하는 강경옥의 삶의 방식과 크게 대비된다. 강경옥은 결국 고국에서 음악가로서 별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미국행을 한 것으로 작품 결말부에서 드러난다. 박경리는 강경옥을 통해 결혼의 제도권 밖에 놓인 미혼 여성의 법으로부터의 일탈이 결코 사회적 주체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본 장의 논의 대상이 되는 여성 지식인 인물들은 이와 같이 탄탄한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법—주로 결혼과 가족제도가 규율하는 범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왜곡된 방법으로 사회적 주체를 정립하려 하지만 좌절하고 만다. 『영원한 반려』의 김영미 또한 이러한 인물 유형으로서 주목된다. 대학 중퇴의 학력에 어느 정도의 미모를 자랑하는 김영미는 무식한 벼락부자로서 “신홍 귀족병”(237)을 앓고 있는 사업가 윤필구의 후처이다. 그녀는 남편 윤필구의 재력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품어 왔던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의 강사이자 소설가인 신병구씨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전에 김영미에게는 신병구씨를 자신의 결혼 상대자 겸 문단 진출을 위한 조력자로서 삼기 위한 “목적의식”(107)을 가지고 대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김영미는 재력만으로써 문단 진출이 가능해지자 신병구씨가 자신과 불미스런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던 것처럼 거짓소문을 퍼뜨려 그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든다. 정당한 실력이 아닌 “신홍귀족병”을 앓는 남편의 재력에 힘입어 작가로서의 이름을 지면에 올린 김영미는, 그러나 그 남편이 화재로 인해 무리하게 일으킨 사업에 실패하여 재력을 잃자 태도를 표변하는데, 본 장의 논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주목되는 바이다.

김영미는 자신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고, 더하여서 작가로서의 명성까지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황금의 위력이 사라지자, 남편 윤필구를 가차 없이 배반하고 가족제도의 범으로부터 일탈을 서슴없이 감행할 태세를 보인다. “천부의 미모”(408)만을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의 재산으로 생각한 김영미는 과거에 가졌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다시 신병구씨에게 접근한다. 김영미는 황금의 위력으로 유지하였던 윤필구와의 가족관계를 그 황금의 위력이 사라지자 아무런 도덕적 자의식 없이 저버린 것이다. 그녀는 결국 『타인들』의 강경옥과 마찬가지로 신병구씨에 의해 “영락없는 창부”(406)로 규정되는 바, 이는 미모 혹은 성을

담보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회적 주체 형성을 기도한 여성 인물의 공통적 말로라 하겠다.

한편, 『나비와 엉겅퀴』의 송인숙, 『단층』의 기옥 역시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자행해서라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인물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삶에서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송인숙은 부를 얻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대학 선배로서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윤희련을 기만하여 그녀를 합법적인 아내 이외에 이미 정부를 두고 있는 플레이보이 최일석의 또 다른 정부로 맺어주기 위해 온갖 술책을 쓴다. 이처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가족법의 위반을 묵인하고 부추기기를 자행하는 송인숙의 사적인 삶 역시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문란하게 전개된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모종 상품 “밀조자의 공범자”이자 “정부”(449)로서 부의 축적을 기도해 왔으나, 그러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유실할 위기에 처한다. 송인숙은 이 작품에서 부의 축적을 통해 자산가로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도덕적 자기-반성, 자기-처벌 없이 가족제도로서의 법, 사회적 규제로서의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성격화되어 있는 바, 앞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회적 성취 역시 그 전망이 밝지 않을 것임을 이 작품은 시사하고 있다.

『단층』의 기옥은 자신이 판자촌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류층 남자와 교제하여 결혼에 성공함으로써 신분상승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일삼는 인물이다. 기옥이 사회생활을 하여 모은 돈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은 그 목적이 오직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신분상승이라는 사회적 성취를 향한 기옥의 이와 같은 노력은 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우를 범하게 되고, 이는 스스로의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결

과를 낳는다. 기옥이 범한 결정적인 범으로부터의 일탈은 상류층 자제들과의 교제비용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판 행위이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기옥은 주변으로부터 “똥갈보”로 매도된다. 나아가서 기옥은 무책임한 상류층 자제의 사생아를 낳는 미혼모로서 전락하고 만다. 이 작품 역시 기옥을 통해 정당한 실력으로 사회적 주체를 정립하려 하지 않고, 성을 수단으로 삼는 교육받은 여성 인물의 몰락상을 그려 보임으로써 법에 대한 저항이 아닌 일탈이 결코 사회적 주체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홍성숙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자행하는 부정적 지식인 여성상을 살피기로 하자. 홍성숙은 성악가로서의 입신출세를 위해 친일파 조선의 귀족이자 자산가인 조용하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륜행각을 벌인다. 이 같은 범으로부터의 일탈이 조용하 편에서는 아내인 임명희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벌이는 일시적 유흥의 성격이 짙은 것이라면, 홍성숙 편에서는 가정을 버리고서라도 조용하의 후원에 힘입어 성악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조용하·홍성숙의 불륜에는 법과의 충돌을 하나의 드라마적인 상황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사랑의 감정이 부재하며, 이에 단순한 위법 즉 간통의 의미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 하겠다. 홍성숙은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알아차렸을 때, 조용하를 찾아가 남편과 기꺼이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그의 후원을 기대하지만 조용하로부터 차갑게 거절당한다. 이러한 홍성숙의 범으로부터의 일탈은 사랑이 부재하기에 당대의 신여성들이 누렸던 자유연애의 명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사회적 출세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홍성숙의 조용하와의 불륜행각은 그녀가 무골호인인 남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의 후반부에서 홍성숙은 “유한마담”으로 전락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실력으로써 사회적 주체 형성의 길에

매진하지 않고, 성을 수단으로 유력한 남성의 후원에 힘입어 성공하고자 하였던 홍성숙은 “자질이 뛰어나고 정통적으로 공부한 후배들에게 밀리면서 급속하게” “퇴조의 길”(13;335)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상당수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은 미약한 편이다. 특히 본 장에서 살핀 여성인물들의 사회적 주체 형성을 위한 일탈의 양상을 통해 박경리의 지식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읽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지식인 여성인물이 박경리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지식인 여성상을 세우기 위한 작가의 반어적인 노력이라 볼 수도 있겠다.

5. 법에 대한 저항과 복종을 통한 새로운 주체의 형성

실제로 박경리의 소설에는 기존 논자들의 주목을 받은 긍정적인 지식인 여성상이 존재한다. 기존 논의는 이들의 강인한 생명력, 자아탐색의 과정, 정체성 위기의 극복,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맥락을 이어서 여성 지식인 인물의 ‘법’에 대한 대응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박경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지식인 여성상들 위에 양각시킨 긍정적 여성상을 살피기로 한다. 버틀러의 이론에서 주체의 ‘저항 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정신적 저항이 권력의 토대를 잠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효과 혹은 담론적 생산물이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버틀러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복종을 통해 생산된다는 이론을 따르지만, 담론의 지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정신적 잔존물(psychic

reminder'에 주목한다. 그녀에 따르면 주체가 권력과 맺는 관계는 양가적이다.¹⁸⁾ 여기에서는 권력에 대한 주체의 저항과 복종이라는 양가적 관계에 주목하여, 주체의 동질적 일관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박경리 소설의 여성 지식인 인물들을 살피기로 한다.

박경리 문학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녀가 어느 한 시기에 이와 같은 긍정적 여성 지식인상을 성격화하는 데로 나아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지식인 여성상은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박경리의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창작 기간에 걸쳐서 넓게 분포되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류도』의 강현희, 『내 마음은 호수』의 문명희,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 『시장과 전장』의 남지영, 『토지』의 유인실을 긍정적 여성 지식인상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면모를 살피기로 한다. 이들은 법에 대해 무주권적으로 순응하거나, 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경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저항의 결과 새로운 주체 형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앞의 여성 지식인상과 차별화된다.

『표류도』의 강현희는 박경리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불행한 여인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점, 불륜의 사랑을 한다는 점, 나아가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점 등에서 그녀는 비극적인 여인이다. 이처럼 불행한 인물로 형상화된 강현희를 통해 긍정적인 지식인 여성상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본고는 강현희가 지닌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긍정적 특질을 그녀의 권력에 대한 저항에서 찾는다. 그녀의 저항은 가족제도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18)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의 저항적 행위는 권력에 포섭되지 않는 의도를 가정하고 있으며, 논리적·역사적으로 언어될 수 없는 것이자 저항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과의 우연성과 반전의 상호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속한다. S. Salih, 앞의 책, 227쪽, 217~218쪽; J. Butler, op.cit., p.15.

여성에 대한 지배담론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제도에 대한 강현희의 저항은 우선 그녀가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라는 사실과 관련을 맺는다. 물론, 강현희와 그녀의 아이가 각각 미혼모와 사생아라는 신분으로 고착된 것은 강현희의 첫사랑 찬수가 한국전쟁의 와중에 죽음을 맞이한 사실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를 한국전쟁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비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1940년대)에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던 강현희가 결혼이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경제문제라는 실리적인 이유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와 과감하게 동서생활을 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내린 부분이다. 이는 당시의 결혼관 내지 가족관에 기대어 볼 때 지배담론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강현희의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결단이 돋보인다 하겠는데, 강현희가 정상적인 가족제도로의 진입에 좌절된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이외에 이와 같은 결단이 한몫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찬수와와의 관계에서 가족제도의 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랑을 하였듯이, 강현희의 이상현과의 불륜의 사랑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 작품은 강현희가 이상현과의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도달점으로 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강현희는 이상현에 대한 사랑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는 강현희가 경제적으로 철저히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이상현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로서 가족제도 보다는 계층적 차이를 우위에 놓고 본다는 점 등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강현희는 ‘법에 저항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에게 붙여진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 ‘불륜의 사랑을 하는 여자’라는 부정적 수식어에 ‘비판적 탈주체화’¹⁹⁾라는 긍정적 의미부여를 해 볼 수 있다. 강현희의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적 사랑의 경험은 그녀가 가족제도 내에서 정상적인 아내,

어머니의 위치에 설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은 재의미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바, 작품의 결말부에서 강현희가 “감정의 대상”인 이상현이 아닌 “의지의 대상”²⁰⁾인 김환규를 선택하여 가정을 이룰 결심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법에 저항하더라도 사랑을 지킬 줄 알았던 강현희는 ‘미혼모’, ‘불륜의 대상’에서 ‘의지’로써 가족제도에 복종하는 ‘아내’로서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강현희가 다방 ‘마돈나’의 마담으로서 자신을 구두로 외국인에게 팔아넘긴 속물 최강사를 살해한 사건은 가정의 테두리 밖에 놓인 여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강현희는 결국 공권력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과정 역시 그녀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현희가 “의지의 대상”인 김환규와 가정을 이룰 결심을 굳힌 것은 이러한 삶의 역경과 유관하다 하겠다. 결국 강현희는 가족제도라는 법에 복종하는 바, 이러한 복종이 법에 대한 저항을 통해 스스로의 인식 변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의 장들에서 논의된 인물들과 차별화된다.

『내 마음은 호수』의 문명희,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 역시 법에 저항하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스스로의 사랑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법에 복종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강현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내 마음은 호수』의 문명희는 대학재학 시절 “사랑에 대한 애상이나 꿈”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적인 면”(14-15)을 타산하여 의사인 한석중과 결혼한다. 그런데 자유분방한

19) J. Butler, op.cit., p.130.

20) 박경리, 『표류도』, 『현대문학』, 1959. 11, 152쪽.

성격의 문명희는 한석중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시동생격인 송병림에 대해 운명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는다. 불륜과 근친적 애정이라는 이중의 금기가 장애로 자리할 뿐 아니라, 조카 문진수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또 다른 금기가 더해지는 이 사랑의 감정에 대한 문명희의 대응방식은 저돌적이다. 그녀는 과감하게 이 금기들에 저항하여,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식을 부정하면서 송병림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문명희는 송병림을 속여 유원지의 숙박시설로 끌어들인다. 이 마지막 수단으로도 송병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문명희는 결국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친다. 문명희의 송병림에 대한 이와 같은 애정행각에서 주목되는 바는 그녀가 법에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²¹⁾이다. 결말부에서 문명희는 한석중과 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함으로써, 그의 아내로서의 주체를 새롭게 정립한다.

『재혼의 조건』의 유강옥은 한국전쟁 중에 국군에 의해 살해된 애인 윤명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처녀 며느리”로서 윤명환의 집에서 칠년의 세월을 보낸다. 이 부분에서는 유강옥을 통해 전통적 도의에 충실한 순종적 주체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핵심은 유강옥이 시부모의 권유로 여교사로 일하면서 만난 동료교사 남성우와의 불륜의 사랑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다. 남성우는 도덕에 구애되지 않는 “반역적인 인간”(228)으로 성격화되어 있으나, 그를 통해 법에 대한 저항의

21) 「시원했어요. 할 짓은 다 해버렸으니까요. 왜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하는 원망도 없어요. 그렇다구 해서 참 용케 살아났다는 생각도 없어요. 전부를 털어버렸죠, 전부 틀요…….」(280) / 이는 자살 사건 이후 회복된 문명희의 대사이다. 사랑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 수단까지를 동원한 이후, 그녀는 몇 겹의 장애를 가진 짝사랑을 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작품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유강옥이 처녀 머느리로서의 삶을 접고 재혼할 결심을 하게 되는 인식 전환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강옥은 문명회와 마찬가지로 남성우와의 불륜의 사랑을 중도에서 접지 않는다. 그녀는 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여지를 남겨두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남성우와 육체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랑의 극지에서의 허무를 경험한다. 불륜의 사랑이 갖는 한계에 굴복하는 것과 사랑의 극지를 경험한 이후 사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은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강옥에게 있어서 남성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허무를 본 것이 재혼의 조건인지도 모른다”(233)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 바, 유강옥이 자신을 오랫동안 사랑해 온 이치영과 결혼하여 그의 ‘아내’로서의 주체를 정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시장과 전장』의 여주인공 남지영을 통해서도 가족제도에 대한 저항과 복종을 통한 주체의 재정립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의 초반부 남지영이 연안 여학교의 교사로 취직하여 떠나기 전후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前夜’장의 남지영이 남편 하기석에게 보낸 편지글을 중심으로 이 작품 초반부에 주목할 때, 남지영의 연안행은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지글에 따르면, 남지영은 직장생활에 대한 염증, 정신대로 차출될 가능성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미지의 남성으로부터 연애편지를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도박”(115)을 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남지영의 하기석과의 결혼은 주체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주변상황에 밀려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남지영은 인텔리 아내에 대한 허영을 가진 남편의 의지대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교육을 받고 여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결혼을 불결한 것”(119)으로 생각하고 “염

오”(120)하게 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 편지글에 드러난 이러한 남지영의 고백을 토대로, 남지영의 연안행은 주체적 결단 없이 이루어진 결혼 생활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짙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²²⁾ 이를 통해 남지영 자신의 사회적 주체 정립의 의지를 읽기는 어렵다.

그런데 논자들이 주목하는 남지영의 진면목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강인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이다. 그렇다면 연안행을 할 당시의 남지영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정으로 복귀한 남지영 간의 괴리는 크다 하겠다. 본고는 이를 주체의 권력에 대한 양가적 관계로서 설명코자 한다. 주체적 결단 없이 결혼과 가족제도의 법에 복종하였던 남지영은 이에 대한 저항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순종적 주체의 허명을 벗고 가정 내에서 진정한 아내, 어머니, 딸로서의 주체를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본 장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복종의 양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체를 재의미화한 긍정적 지식인 여성상을 살피고 있는 바,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은 『토지』의 유인실이다. 이상의 여성인물들이 가족제도 내에서 아내, 어머니로서의 주체를 (재)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인실은 박경리가 창조한 여성 지식인 인물 가운데 드물게 사회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오가다 지로를 사랑함으로써, 투철한 배일감정을 가진 그녀로서는 양립시킬 수 없는 사랑과 민족의 문제로 인해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한다. 유인실은 우선, 오가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민족담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22) 연안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남지영은 “가족들과 아주 헤어져 버린다는 무서운 욕망”(100) 때문에 자신의 납북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기도 한다.

23) 물론,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 한국전쟁이라는 위기상황 또한 남지영의 이와 같은 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의 타협과 저항』,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219쪽.

즉 유인실은 오가다에게 “생명보다 중한 것”을 주는데, 이는 유인실에게 “단순히 여자의 순결”을 내주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오가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행위를 “조국”에 대한 “반역 행위”(12;41)로서 본 것이다. 이처럼 지배담론에 저항하여 사랑의 극지를 통과한 유인실은 이제 그 사랑을 포기한다. 동시에 결혼하지 않을 결심을 굳힘으로써 오가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을 결심을 한다. 또한 오가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포기한다. 그녀는 가족제도에 반하는 삶을 살 결심을 한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줄 가족제도에 저항한 유인실은 항일이라는 민족담론에 복종함으로써 민족 투사로서 거듭난다. ‘비판적 탈주체화’를 통하여 새로운 주체를 정립하게 된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박경리는 긍정적 지식인 여성상을 통하여 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그녀는 법에 대한 맹목적 복종 혹은 법으로부터의 일탈이 결코 올바른 여성상 정립의 방책이 될 수 없음을 부정적 여성 인물상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바,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해 저항과 복종이라는 양가적 태도로써 이상적인 주체를 정립한 지식인 여성인물의 입장을 잘 양각하고 있다 하겠다.

6. 결론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 등장하는 지식인 여성 인물상을 고찰함으로써 그녀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박경리가 창조한 지식인 여성 인물들의 법에 대한 대응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법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 법에 무주권적으로 순응하는 인물,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자행

하는 인물, 법에 대해 저항과 복종의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그 유형을 나누고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 주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의 여성 지식인 인물들은 가족제도라는 법에 복종하지만, 상실한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예고에 합체함으로써 ‘우울증적 주체’의 면모를 보인다. 이 여성인물들은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에 복종하지만 그들이 진입한 가족제도 내에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우울증적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법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두 번째 유형의 여성 지식인들은 주로 지배담론에 부합되는 기준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족제도에 편입되지만, 에로스적 사랑이 부재하거나 그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가족관계 내에서 허명에 불과한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상실한다. 이 부류 여성인물들은 또한 주체적 사유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바, 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정체성 또한 허명에 불과함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사회적 주체 형성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부류의 여성인물들을 세 번째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들은 가족윤리의 위반에 대해 도덕적 자기-반성이 부재하는 인물들로서, 정당한 실력으로써가 아니라 미모 혹은 성을 수단으로 사회적 주체를 정립하려 하지만 좌절한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해 저항과 복종이라는 양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가족관계 내에서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거나, 사회적 주체로서 거듭나는 여성인물들을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긍정적 인물상을 조명하는 데 그친 부분적 고찰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본고는 박경리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다각적인 부류의 여성 지식인 인물상을 밝힘으로써, 박경리 문학의 전모에 접근해 볼 수 있었다. 박경리가

겨냥한 이상적 지식인 여성상은 5장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 2, 3, 4장에서 살핀 부정적 여성 지식인상은 이를 잘 양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인 여성상의 성격화를 통해 박경리가 주체 재의미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에 대한 저항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경리, 『귀족』, 『현대문학』, 1961. 2.
- _____, 『설화』, 박경리문학전집19, 지식산업사, 1987.
- _____, 『눈먼 실솔』, 박경리문학전집11, 지식산업사, 1980. (《카톨릭시보》, 1967)
- _____, 『표류도』, 『현대문학』, 1959. 2~11.
- _____, 『내 마음은 호수』, 지식산업사, 1982. (《조선일보》, 1961)
- _____, 『가을에 온 여인』, 지식산업사, 1980 (《한국일보》, 1962.8~63.5)
- _____, 『재혼의 조건』, 박경리문학전집10, 지식산업사, 1980. (『여성』, 1962.11~63.4).
- _____,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 _____, 『타인들』, 박경리문학전집9, 지식산업사, 1980 (『주부생활』, 1965.~66.3).
- _____, 『영원한 반려』, 지식산업사, 1987.(《조선일보》, 1967)
- _____, 『창』, 지식산업사, 1980 (《조선일보》, 1970).
- _____, 『단층』, 지식산업사, 1986. (《동아일보》, 1974. 2. 18 ~ 12. 31).
- _____, 『토지』, 솔출판사, 1996.

2. 단행본

- 박정애, 『‘女流’의 기원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 Althusser, L.,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도서출판 백의, 1995.
- Foucault, M.,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 Freud, S.,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07.
- Salih, S.,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역, 엘피, 2007.
- Butler, J., *The Psychic Life of Power-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niv. Press, 1997.

3. 논문

-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8.
- 김혜옥, 『‘여성적 자존(自尊)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1950년대 박경리 소설』,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편, 숲, 1996, 222~251쪽.
-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1999.
-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의 타협과 저항』,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211~235쪽.
- 백지연, 『박경리 초기 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95.
-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2006.
- 이미정, 『1950년대 여성 작가 소설의 여성 담론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2.
-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편, 숲, 1996, 272~298쪽.

Abstract

A Study on the Women Intellectuals
in Park, Kyung Ri's Novels

Kim, Eun-kyung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Women Intellectuals characterized in Park, Kyung Ri's Novels through the women characters' reaction to Power(law, dominant discourse).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the Women Intellectual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 women characters passively resisting law, women characters unconditionally obeying law, women characters deviating from law, women characters taking a ambivalent attitude of resistance and obedience toward law. The first type of women intellectuals yield to law of the family system. But it is formal obedience. Because they can't forget an bygone love loosing by marriage obstacle. They form 'Melancholiac Subject' uniting their ego with the loosing lover. So, they practically deny the identity as wife and mother. This type of women characters passively resist law in the field of power. The second type of women characters form Complaisant Subject. They obey the marriag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riterions of the dominant discourse without love for spouse. We can notice that these woman characters' identities as wife/mother are empty names. Their social identities such as a patron of the arts, poet are also empty names. Because they marriage and socialize in compliance with the dominant discourse without independent thinking. The third type women characters attempt to form Social Identity by deviating from law, especially family system. They try to succeed in social life by sex

peddling. Finally, they fail to form Social Subject. The fourth type of women characters are positive images of women intellectuals. Their attitudes toward law are ambivalent. They sometimes resist law, and sometimes obey law. They don't absolutely yield to law and deviate from law. They resist law according to their independent decisions. After resisting law, they obey law and form new (Social) Subject.

Through this discussion on the four types of women intellectuals, this essay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preceding investigation which focuses on the positive women characters. And, through the positive women intellectuals brought into relief by the negative women characters, we can notice that the resistance to law enabling Subject formation is emphasized in Park, Kyung Ri's Novels.

Key words : Women Intellectuals, Law(Power, Dominant Discourse),
Melancholic Subject, Complaisant Subject, Social Subject, Resistance

■ 본 논문은 10월 15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